

아사코노이치 (淺古の一) 고분

1963 년에 사쿠라이시 (桜井市) 아사코 (淺古) 에서 토사 채취 공사를 하던 중에 고분이 파괴되었다. 횡혈식석실의 안쪽 벽으로 추정되는 흙 속에서 거의 완형에 가까운 스에키 장식 달린 그릇받침 (裝飾付器台) 외에, 미니츄어 이동식 부뚜막 (竈), 마구류, 쇠못 (鐵釘) 등의 유물이 수집되었다.

장식 달린 그릇받침은 7 개의 뚜껑을 덮은 접시를 얹은 것으로 높이는 20.6cm, 그릇받침부 구경은 27.4cm 이다. 그릇받침 다리 (脚部) 에 2 단의 방형 투창을 3 방향에서 뚫었고 그릇받침 아가리 (口緣部) 에서부터 다리에 걸쳐 빗살 파상문 (櫛描波狀文) 이 그려져 있는데 유례가 적고 형태도 뛰어난 유물이다. 장식 달린 스에키의 출토 예 자체가 매우 적는데 헤구리초 (平群町) 우도즈카 (烏土塚) 고분 (6 세기 후반) · 오요도초 (大淀町) 이시가미 (石神) 고분 (7 세기 전반) 에서 접시를 위에 얹은 그릇받침이 출토된 예가 있다.

미니츄어 이동식 부뚜막은 도래계 (渡來系) 집단과 관련있는 유물로 파악되고 있는데 나라현 내에서는 아스카 (飛鳥) 지역의 히노쿠마 (檜隈) 주변이나 가이부키야마 산 (貝吹山) 주변, 가쓰라기산 산 (葛城山) · 곤고산 산 (金剛山) 동쪽 산록부, 도미야마 산 (鳥見山) 주변 등 특정 지역에서 부뚜막 · 술 · 구멍단지 (甌) 와 같은 취반구 (炊飯具) 세트의 부장이 보인다. 본 출토 예도 도미야마 산 북쪽 집중지역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마구는 작은 파편으로 깨져 있었지만, 금동장식의 f자형 재갈멈치 (鏡板), 말띠드리개 (劍菱形杏葉), 쇠발걸이 (鐵製輪鐙) 등이 출토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은 마구가 부장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분 축조연대는 6 세기 초두로 추정되며 상당히 빠른 시기의 초기 횡혈식석실로 생각되지만, 그 구조를 알 수 없어 아쉽다.